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4차 세션, 신약성서의 창조, 땅, 휴양 , 1부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4, 신약에서

의 창조, 땅, 레크리에이션, 1부입니다. 우리는 창조, 새 창조, 땅이라는
성경적-신학적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약의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창조, 새 창조, 땅에 대한 신약의 강조점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약을 볼 때,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땅으로, 창조로
다시 데려오시는 성취에 대한 예언적 기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의 성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자체가 첫 번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거나 회복을 의미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예언적 기대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때, 제가 이미 한
것처럼, 아직 긴장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약속,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려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제 판단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은 아니거나 최종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으며, 저는 그것이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새로운
창조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을 진행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복음서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문헌과 나머지 신약성경을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하며, 요한계시록이 새 창조, 땅에서의 창조, 약속의 성취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다윗의 아들로서의 예수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땅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저자는 그의 복음서의 아주 처음에, 복음서의 아주 처음에 예수를 다윗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아들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복음서에서 예수를 묘사할 방법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땅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에 따르면, 예수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우리는 다윗의 아들이 왕좌에 앉을 것이라는 여러 본문을 살펴보고, 그가 왕좌에 앉을 때, 이것은 사람들이 땅으로 회복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자의 기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안에서 에덴 언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고 원래 창조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유배에서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는 37장 24절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은 모두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 율법을 따르고 내 율례를 지키는 데 주의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네 조상들이 사는 땅에서 살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군주가 될 것이다. 그것이 25절이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으로 회복되는 것이 다윗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 맥락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래서, 저는 시편 2장과 시편 89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은 땅 끝까지 상속 재산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면, 여러 신약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땅으로의 회복이 어떤 의미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새로운 창조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다윗이 왕으로 앉을 때, 다윗이 그의 왕좌에 앉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회복될 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윗의 혈통에 있는 왕으로서 메시아적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과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를 추적하거나 복음서 전반에 걸쳐 다윗의 아들로써의 예수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태가 예수를 다윗의 아들로 지칭하는 데 가장 좋아하는 명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복음서 밖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장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시편과 사무엘하 7장 14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다윗의 약속의 성취로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시작하지만, 이 마지막 날에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해졌으며, 그를 통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의 존재의 정확한 표상이며, 그의 강력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탱합니다.

그는 죄를 정결케 한 후, 하늘의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른편에 앉았다는 그 언어는 시편 110편에서 바로 나온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또 다른 메시아 시편이거나 다윗의 통치자나 다윗의 왕을 언급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오늘 내 아들이요, 내가 네 아버지가 되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는 다시 말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들은 다시 사무엘하 7:14와 시편 2장에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다 분명히 메시아적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를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약속을 성취하고 결론으로 이끄는 분으로 분명히 봅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 문헌에서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에 대한 언급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사하신 그 능력, 그 능력은 그의 강력한 힘의 역사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하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의 영역에서 그의 오른편에 앉히셨을 때입니다. 시편 110장, 다윗의 시편에 대한 또 다른 언급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 그리고 현재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에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칭호 위에 뛰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시편 8장을 참조한 것으로, 이상적으로는 아담이 모든 창조물을 통치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저자는 본문을 인용하지 않고도 메시아 시편인 시편 110편과 창세기에서 아담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다스리게 된 원래의 창조를 기념하는 시편 8편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므로, 이제 그는 왕의 통치에 들어가셨고, 제 생각에는 시편 110편, 시편 2편 등의 성취로 시작하십니다.

시편 8편은 이제 메시아가 모든 창조물에 대한 통치를 확장할 것이라는 시편의 의도를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요약하자면, 히브리서 1장, 에베소서 1장, 그리고 다른 여러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적 통치자로 임명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의 통치를 확장하고 경계를

팔레스타인 땅 너머로 확장하여 시편과 다른 구약성경 본문의 성취에 따라 지구 전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땅의 목적이 결국 모든 창조물을 확장하고, 포용하고,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다윗의 더 큰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아들 예수의 주제가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땅의 약속의 성취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시편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회복될 때 통치할 것이라는 예언적 본문 중 일부는 그가 모든 창조물 위로 그의 통치를 확장할 것이고, 그가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상속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저는 예수가 다윗의 아들이고 그의 왕적 통치에 들어갔다면, 히브리서와 복음서가 암시하는 것처럼, 히브리서와 바울 서신이 암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다윗의 통치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구약성경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다윗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통치를 창조물 전체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미 도래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Greg Beal이 그의 신약성경 신학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 아마도 특히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문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 특히 요한복음에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며, 새로운 창조의 시작된 삶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인 이사야 6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 창조의 맥락에서,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나무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의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사야 65장에서, 새 창조의 맥락에서, 우리는 그것이 조기 사망이나 생명의 부족을 특징짓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20절의 한 구절에서 칠십인역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나무와 같이, 그들은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인 칠십인역은 생명나무와 같이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생명이 새 창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삶은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의 새 창조에 속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을 통해, 특히 요한 복음에서, 이 부활, 이 삶, 이 극복하는 죽음은 새 창조의 임재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은 주로 새 창조에 속한 삶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65장, 에스겔 37장, 그리고 다른 여러 본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 자신의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특히 바울의 서신에서 볼 수 있듯이, 새 창조의 삶의 시작이며 새 창조 자체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몸은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넘어간 첫 번째 물리적 몸이었고, 새 창조 안에서의 삶에서 존재하기에 적합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자신의 물리적 몸은 어떤 의미에서 새 창조의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자신의 부활은 구약에서 새 창조 아래서 약속된 것, 즉 약속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본문이 하나 있는데, 언급할 만한 다른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복음서의 맥락에서, 그리고 예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맥락에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에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27장에서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맥락이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51절과 52절부터 53절까지, 예수의 죽음이 발생했을 때 매우 흥미로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51절부터 시작하여,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많은 거룩한 사람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왔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은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에 관심이 없지만, 한 측면에서 이것의

요점은 우리가 여기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 옛 우주가 깨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일으켜짐으로써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다소 이상한 설명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맥락에서, 저는 한 측면에서 마태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새 창조를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옛 우주의 해체와 부활로 입증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수반합니다. 사실, 죽음에서의 부활과 생명은 새로운 창조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생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구약에서, 우선 이스라엘에게 땅을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은 그들을 다스릴 다윗 왕과 함께 했으며, 다윗 왕은 통치를 확장하고 경계를 확장하여 모든 창조물에 도달할 것이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아담의 임무는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는 땅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 이제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로의 승천을 통해 온 우주 위에 즉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온 우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이미 아직 아닌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다윗 왕으로 통치하고 모든 창조물에 대한 통치를 확장하고 계시지만,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에서 이것이 마침내 성취될 날이 아직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있겠지만, 복음서의 핵심 요소들이 예수께서 다윗 왕권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창조, 새 창조, 땅에 대한 약속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서신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종종 땅이나 새 창조에 대한 명확한 언어를 찾지 못하지만, 바울이 새 창조의 현실이나

땅의 약속, 또는 다가올 새 창조의 약속과 분명히 연결된 특정 요소에 호소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찾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새 창조 언어를 사용하는 한 본문을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바울의 서신은 다소 선택적일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서신에 있는 모든 사소한 일화나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싶지 않지만, 땅과 새 창조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드러지고 중요한 본문 몇 가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서 6-8장은 제가 잠깐 멈추고 싶은 첫 번째 구절이고, 다시 한 번; 우리는 그 중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지만, 더 광범위하게는 새 창조라는 주제가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6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6장의 처음 몇 구절, 아마 6-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취된 새 창조의 실체를 우리에게 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은혜가 더해지도록 계속 죄를 지을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죄로 죽은 것이 아니니 어떻게 그 안에서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 그의 죽음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죽음 안으로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 안에서 그와 연합되었으면, 우리는 또한 그의 부활 안에서 그와 연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없어지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 죽으실 수 없음을 압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죽으셨으니, 그분은 한 번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제, 이 섹션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시 한 번,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이 새로움과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주목하세요. 다시 한 번, 저는 이것이 신약이 여기서 새로운 창조의 약속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각주처럼 저는 창조, 새 창조, 땅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들이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다시 생각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의 삶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또한 우리도 그 부활의 삶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 새로운 창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흥미로운 질적 용어일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의 새로운 창조 언어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의 부활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삶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에는 물리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 영적으로 그것을 공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 새 창조의 부활 생명에 영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 옛

창조와 죽음에서 구출되었고, 그것은 종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창조, 즉 새 창조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창조, 특히 그 지배를 종식시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동참하고,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실제로 새 창조의 삶을 경험하신 분과 연합함으로써 영적으로 그것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와 합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그것에 참여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창조의 현실을 언급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을 암묵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본문은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여러 번 사용한 구절 중 하나는 생명의 영 또는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언어입니다. 8장의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죄의 본성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에 지배받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는 대문자로 쓰여 있는데,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나 너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에서 영과 생명의 언어, 그리고 영이 생명을 주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의 일부는, 특히 8장 11절에서, 여러분의 멸성체에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언어는, 제 생각에, 에스겔 37장을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땅으로 회복하시는 맥락에서, 우리는 마른 뼈의 골짜기와 뼈가 어떻게 합쳐지고, 영이 그

골짜기에 들어가 생명을 주고, 그들이 일어서는 것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습니다.

저는 바울이 여기서 생명의 영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멸성체에 생명을 주는 영은 새 창조의 생명을 상징하거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자신이 이미 경험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부활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새 창조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첫 번째 창조의 죄의 효과를 역전시킵니다. 사실, 다시 한번, 그레그 비얼은 그의 신약 신학에서 영, 성령이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새로운 창조의 약속이자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에스겔 37장조차도 그 새로운 창조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땅으로 회복하실 때 땅으로의 귀환과 연결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 특히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직 물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 우리의 물리적 몸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죽음에 종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물리적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조차도 창조가 우리의 물리적 몸과 마찬가지로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장과 19절 초반에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시킨 자의 뜻으로 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체가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는 ...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과 우리가 이미 새 창조의 삶을 경험하는 것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새 창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동일한 영의 덕분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적 부활을 경험할 날까지 신음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조물이 신음하더라도; 창조물은 창세기 3장의 타락과 저주의 영향이 마침내 역전될 때 자신도 구속될 그 날을 기대합니다.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창조,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의 최종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창조를 언급하고 기대하며,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의 첫 번째 창조와도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전체 구절을 읽을 시간을 갖고 싶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이 장의 주제인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부활은 구약의 새 창조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부활은 새 창조의 도래를 알리는 주요한 현실 중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65장과 다른 곳에서, 죽음이 패배할 때 새 창조의 특징적인 특징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아담과의 특정 연결도 주목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겨진 몸은 썩을 수 있는 몸이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합니다. 육됨으로 심겨지고 영광으로 부활합니다. 약함 으로 심겨지고 권능으로 부활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몸으로 심겨지고, 영적인 몸으로 일어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땅의 먼지에서 나왔고,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첫 번째 창조와 그에 대한 죄의 영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생명을 주는 영을 통한 새로운 창조 행위로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심으로써 거짓 이전의 상태를 회복합니다. 그는 아담의 죄로 인해 첫 번째 창조에서 초래된 죽음의 효과를 극복하고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과 생명, 아마도 영생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일 텐데, 특히 요한복음과 다른 곳에서, 생명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새 창조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결합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한 가지 본문, 새 창조 자체를 분명히 언급하는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과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뒤로 돌아가서 16장을 읽을 수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때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보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라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창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은 상당히 표준적인 번역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또는 그녀는 새 창조물입니다. 이것의 어려움은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종종 그것을 해석하고 개인적인 용어로만 읽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등등,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 중 어떤 것도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돌아가서 이 구절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는 이사야 65장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언급으로 매우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절에서 선지자는 보라, 내가 새 하늘 과 새 땅을 만들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

그는 이전 것들을 잊고,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맥락에서 이전 것들이 사라졌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7 절에서 같은 대조를 발견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창조물이고, 그는 즉시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 대조는 이사야 65장에서 바로 나옵니다.

새 하늘 과 새 땅을 보았노라. 첫 번째 하늘과 땅은 없어졌노라”고 말한 계시록 21:1에서도 이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같은 대조를 보여줍니다. 새 창조,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왔노라. 다시 말해, 저는 바울이 이사야 65장을 암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5장과 6장을 더 읽어보면 바울이 특히 6장 끝 부분에서 구약성경 본문을 여러 개 인용하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는 여러 본문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중 몇 개는 이사야와 다른 곳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사야 65장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서 이사야 65장을 참고해서 읽어보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사야 65장은 새로운 피조물이나 새로운 존재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마도 새로운 피조물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새 창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장 15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 창조를 시작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새 창조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삶을 시작했으며, 따라서 새 창조 자체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저를 그 구절로 이끕니다: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저는 원래 NIV 버전을 읽고 있지만, NIV의 2011년 버전은 실제로 이것을 업데이트했고,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어를 알고 이 글의 그리스어 본문을 보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가 새 창조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일 수도 있고 암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라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다시 한 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제가 의역하자면, 그들은 이제 새 창조에 속하거나 새 창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들은 새 창조의 일부입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15절,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께서 새 창조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도 새 창조에 속하고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주의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나는 새 창조물입니다. 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는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신학적으로 그것들이 옳다는 것을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바울은 우주론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시작된 새 창조에 속합니다. 2011 NIV에서 말했듯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새로운 창조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다시 한 번, 그의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마무리하기 위해,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새로운 창조가 이사야 65장에서 이사야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그 새로운 창조에 참여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면 우리는 그 새로운 창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는 아마도 영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을 모두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서로의 화해의 맥락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고, 우리는 서로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현실의 일부이지만, 육체적으로 새로운 창조는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적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5:17에서 새로운 창조의 영적 차원과 육체적 차원을 모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명확하게 묘사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저는 새로운 창조를 땅의 의도와 연결하는데, 이는 원래의 창조로 다시 연결됩니다.

저는 그것들이 모두 함께 일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저는 여러분이 새 창조의 언어를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는 건너뛰어서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지만, 저는 새 창조라는 주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을 때, 여러분이 살던 범죄와 죄악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그들 가운데 살면서 죄스러운 본성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그 욕망과 생각을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본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으로 죽은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비할 데 없는 풍성함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에서 타락으로 인한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이 현세의 특징인, 우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언어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거나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새 창조의 시작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으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10절을 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떤 식으로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10절의 의미를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도록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즉, 선한 일은 이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22절과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창조와 새 창조 사이의 연결에 유의하십시오. 22절, 여러분은 이전의 삶의 방식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옛 자아는 그 기만적인 욕망에 의해 타락하고 있으며, 옛 자아는 아마도 아담 안에서 우리가 된 존재일 것입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 마음의 태도에서 새롭게 되고, 새 자아를 입으라는 언어에 유의하십시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나, 새 자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새 창조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서 새 창조의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으며,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도록 의도하신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된 행위로 그 삶을 살도록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마도 창조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4장 22절에서 24절에 따라 삶을 살고, 의로움과 거룩함의 삶을 살아서 새 창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골로새서 1장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골로새서 1장과 3장에서 몇 구절만 읽어보고 싶습니다. 새 창조의 언어를 다루는 몇 개의 본문이나 몇 개의 구절을 다시 한 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과 15절입니다.

우리는 다른 주제를 다루는 이러한 텍스트 중 일부로 돌아갈 것입니다 . 우리가 여러 번 말했듯이, 이러한 주제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풀리게 되는데, 마치 천 조각에서 실을 떼어내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떼려낼 수 없이 결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제 중 많은 부분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텍스트 중 일부는 다시 다룰 것이고, 특히 이 텍스트입니다. 하지만 1장 15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지만, 창조 언어에 주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악한 존재였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모습이며, 창조물 전체의 맏아들입니다.

즉, 그는 창조물에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창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를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대리인입니다.

창세기 1:1의 메아리를 주목하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또는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첫 번째 창조 행위에 관여하셨지만, 18절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는 시작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부활의 언어를 다시 주목하세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첫 번째 창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첫 번째 창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18절에서 그분은 부활로 다시 한 번 새 창조를 시작하는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부활은 새 창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콜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더 많은 창조 언어를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자아와 그 관행을 벗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도 옛 자아는 아마도 아담 안에서의 저일 것입니다.

옛 자아는 내 존재의 어떤 존재론적 부분이 아니며, 어떤 번역에서 말하듯이, 내 죄스러운 본성이나 죄를 짓는 내 부분 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옛 자아가 아담에게 속한 나의 전체 존재이며,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아담의 권위 아래 있고, 죄에 속박되어 있고,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전체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3장 9절에서 그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10절에서 새 자아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 새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자아를 입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언어를 다시 주의하십시오.

그러므로 바울이 다시 한 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예수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위해 의도하셨던 것을 이제 성취하셨지만, 죄 때문에 좌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서 창조물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기 위해 오셨고, 이제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도 새롭게 됩니다. 다시 한 번, 10절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는 새 자아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창세기 1장으로 직접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고 있으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는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는 첫 번째 창조의 사명을 이제 시작된 새로운 창조에서 완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가정은 오직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만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아담의 명령과 첫 번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도 중요한 것은,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바울에게 이론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새 창조와 성취에 대해 신학적으로 말하고, 새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특히 골로새서에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 새 창조 개념이 윤리적 맥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활이라는 새 창조의 현실은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즉, 에베소서 4장에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의 현실, 새 창조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옛 창조의 가치와 태도에 따라 살지 않고, 대신 새 창조의 삶에서 가치와 태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전체 목적이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열매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입니다.

사실, 여러 맥락에서 Greg Beal은 신약성경의 열매 맺음에 대한 언어, 윤리에 대한 열매 맺음에 대한 언어, 갈라디아서 5장의 영의 열매와 같은 언어를 연결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새 창조의 열매 맺음과 다시 연결했습니다 .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든 아니든, 적어도 그 특정 본문에서 바울은 새 창조의 실체를 윤리적 맥락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악덕과 덕목 목록을 읽을 때, 바울이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피하라는 긴 목록을 가지고 있을 때, 골로새서 3장에서 그는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 곧 우상 숭배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연민, 친절, 겸손, 온유, 인내를 입는 것처럼.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의 사람들을 위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오늘날의 흔한 악덕과 미덕 목록을 빌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새 창조의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즉, 새 창조의 빛 안에서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새 창조가 온다면, 우리는 새 창조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종류의 악덕을 피하고, 이런 미덕을 추구할 더 나은 이유를 생각해 낼 수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창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그리고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 안에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를 생각해 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서와 바울 문헌에서 새로운 창조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예수 자신의 사역, 그의 삶의 제안, 그의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런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창조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윤리적 의미와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즐기거나 주장하는 신학적 현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창조의 열매를 맺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신약에서의 창조, 땅, 레크리에이션, 1부입니다.